

독립 운동 컬렉션 분류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공훈전자사료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Movement Collection Classification System: Focus on the Gonghun Digital Archive

오 정 희 (Jung Hee Oh)*

정 연 경 (Yeon 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공훈전자사료관 분류 체계 개발 |
| 2. 독립 운동 기록과 분류 체계 | 5. 결 론 |
| 3. 독립 운동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 현황 | |

<초 록>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독립 운동 컬렉션에 대한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먼저 출처별 분류 체계는 계층별로 구성하였으며 출처별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관련 주제어에 따라 2차 분류한 후, 17가지 자료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출처-주제-자료유형'의 인용 순서로 기술하였다. 또한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이용자가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 운동 DB 자료의 기록물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 체계로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독립 운동 기록물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주제어: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물, 분류 체계,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 출처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Independent Movement Records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ased on the collection of Gonghun Digital Archive based on sources, subjects, and media types. First, the classification system by source is organized by hierarchy, and the records classified by source are classified into the second category based on the related keyword. Then, the records are classified into 17 media types. Finally, it is described in the citation order of "source-subject-media type." In addition, a meaningful collection using inductive methods based on the subject words is derived. Finally, Gonghun Digital Archive collections are categorized by media types, sources, and subjects so that users can easily find the record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 classification system to support records retrieval of an independent movement collection, and it will become a basis for expanding the accessibility of the user and the service of independent movement records.

Keyword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dependence movement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Gonghun Digital Archive collection, provenance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기록관리학 박사과정(bisangjh@korea.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10월 29일 ■ 최초심사일: 2018년 11월 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99-124,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4.09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보훈처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과 희생을 하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및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를 빼앗긴 동안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독립 운동 공적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으신 분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독립 운동에 관한 자료는 애국선열들이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사실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멸실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69년부터 독립 운동사 편찬위원회를 시작으로 1995년 광복 50주년,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내·외 1만 1,371건, 112만 5,429매의 독립 운동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다. 그리고 2005년 통합DB시스템인 '공훈전자자료관'을 구축하여 독립유공자와 관련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훈전자자료관'은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으로서 포상업무 활용 및 기록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DB사업을 시행하여 독립 운동 참여자의 인명, 독립 운동 관련 단체명이나 사건명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나 자료 유형별과 주제별 기록물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훈전자자료관에서 독립 운동 유공자 가족 발굴 및 포상 업무에 기여하고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독립 운동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독립 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독립 운동 공훈전자자료관 분류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의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독립 운동 사료 수집의 개념과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독립 운동 사료 수집의 개념과 현황은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사료 수집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규정 (〔국가보훈처 훈령 제841호, 2008.1.29., 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837호, 2018.4.30., 일부개정〕)를 참고로 살펴보았다.

둘째, 국외 국가보훈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 체계 사례로 아일랜드, 인도, 중국을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와 인도를 선정한 이유는 양국 모두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 운동을 한 국가이고, 중국은 일제 침략을 받아 항일 전쟁이 발생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디지털 컬렉션 아카이브를 구축한 국내 사례는 국가기록원 콘텐츠

유형별 목록 '독립 운동관련 판결문',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정보시스템'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독립 운동관련 판결문'은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컬렉션에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개편 전 '전자자료관'은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과 같이 소장 자료 목록을 정리 및 기술, 분류하지 않고 선별하여 원문을 디지털화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통합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관을 구축한 것과 '운동'이라는 주제별 분류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5.18기념재단의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살펴보았다. '공훈전자자료관' 현황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E-book '보훈50년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현황 및 통계자료, 홈페이지 '공훈전자자료관'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국외 및 국내 사례분석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보훈처의 독립 운동 기록 분류 체계를 '공훈전자자료관' 컬렉션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1.3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제별 기록 분류 체계 연구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분류, 독립 운동 기록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주제별 기록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이영숙(2005)은 시민단체 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을 사례로 환경연합 기록

의 분류 체계 및 처리일정표 개발 과정을 제시하였다. 설문원(2011)은 우리나라 예술아카이브에서는 출처 및 원질서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정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외 예술기록 정리와 분류 현황을 비교 분석한 후, 수집대상 기록컬렉션의 유형 등 국내 예술아카이브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광훈과 남영준(2013)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국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분류 체계 원리와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의 성격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고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황선도(2014)는 독립 운동단체 중 하나인 흥사단을 사례로 현황과 각 기관의 기술항목을 분석하여 독립 운동기록의 기술요소(안)와 규칙(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Szostak(2017)는 박물관에 대한 주제 분류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면서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검토하였고, 기본 개념을 종합하는 접근법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박물관의 주제 분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분류에 관한 연구로 전명혁(2004)은 수많은 민주화운동 단체나 사회운동단체,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과 기준 등을 서술함으로써 향후 민주화운동기록물 분류지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진임(2007)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한국YMCA 전국연맹 컬렉션을 분석하여 매뉴스크립트 분류표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기능분류를 위해 AS5090과 DIRKS 방법론을 참고하였고, 주제 분류와 유형분류와 같은 검색에 용이한 분류 방법도 제

안하였다. 김솔아(2013)는 국가기록원 내에 수집된 사할린 한인에 관해서 현용기록 및 이관 기록 중심인 국가기록원의 체계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뉴스크립트 분야에서 역사적 사건 단위가 가지는 개별성과 독자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박정옥과 이명규(2013)는 5·18 기록물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들어온 질서 없는 수많은 기록물 아이템들의 집합을 정리·분류하는 '집합적 기록물군' 개념의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검색과 이용에 적합한 주제별, 시기별, 형태별로 자료를 분류하는 방식도 제시하였다. 장희우(2014)는 지방문화원의 향토기록물인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의 맥락을 구현하여 기록물 분류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이용과 활용의 증대를 꾀하였다. 먼저 생산 출처로 1차 분류하고, 생산시기별로 2차 분류, 관련 주제어로 3차 분류, 형태 분류를 통해 4차 분류를 하여 기록물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박성우와 정대근(2017)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매뉴스크립트에 적합한 자료로 보고, 광주지역 5·18민주화운동 대표 기관 3곳에 소장 중인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적합한 출처 기반 통합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김유선과 이명규(2018)는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를 사례로 하여 유족회가 생산한 기록물 관리와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과 생산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셋째, 독립 운동 기록 관리 관련 국내 연구로 김정현과 김홍길(2006)은 해외 한국 독립 운동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에 대한 국내의 학술연구의 성과를 기록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고, 러시아지역에 소재한 독

립 운동 기록 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발견된 해외한민족 독립 운동 기록 자료의 발굴이 가진 성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김경남(2017)은 1919년에 설립한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가 추진한 수집·조사활동이 한인 독립 운동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소장기록을 통해 한국 독립 운동의 식민지적 특징을 밝히면서 한국 독립 운동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매뉴스크립트 기록, 개인 기록 분류, 정리 등에 대한 국외 연구로 Jimerson(2002)은 정리란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를 통제하는 물리적, 지적인 과정을 뜻하는데, 기록의 무결성 연구를 위한 접근 용이성을 목적으로 하며,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조직하고 이용자에게 그것을 제공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aravaca(2017)는 기록 분류 체계의 구축이 미완성인 주제이며, 아카이브 분야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분류 체계가 레코드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주요 도구이므로 분류 체계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계층적, 비계층적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주제에 관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해당 기록물의 주제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 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통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해야하는 국가보훈처도 컬렉션을 중심으로 기록물을 분류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 독립 운동 기록과 분류 체계

2.1 독립 운동 기록의 개념과 특징

2.1.1 개념 정의 및 범위

독립 운동이란 식민지상태에서 자주국가의 수립과 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민족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독립 운동의 주체는 민족이며 독립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은 먼저 민족을 발견하고 의식해야 한다. 또한 독립 운동에서 '운동'이란 근대적 개념이며, 사회 발전을 위한 조직적 운동으로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립 운동의 내용을 보면 의병전쟁처럼 무장활동도 있고, 계몽운동처럼 문화 활동 등 다양하다(조동걸, 2011).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물의 대상이 되는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기별 '의병 독립 운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기록원, 2011).

첫째, 1894년 6월에 일본군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침범한 갑오변란, 그리고 을미사변, 단발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일어난 전기 의병이다. 둘째, 1904년 2월 개시된 러·일 전쟁과 그 직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 그리고 1905년 11월 강제로 이루어진 을사조약 등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을 지키고자 봉기한 중기 의병이다. 셋째, 1907년 7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같은 해 8월 1일 구한국군의 강제 해산이 직접적 요인이 되어 봉기한 후기 의병이다. 그러므로 독립 운동 기록물은 의병운동이 시작된 1894년 갑오변란 전기 의병부터 1904년 2월 개시된 러·일 전쟁 시기를 거쳐 1907년 7월 고종의 강제 퇴위 등 후기의병까지 국권 침탈에

맞서 일제 치하에 항거한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 운동 시기별에 이어,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강제병합에서 1919년 3·1운동까지, 1919년 3·1운동이후 1931년 만주침략까지, 1932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 마지막으로 1938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독립 운동 기록물의 수집은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에 맞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항거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 운동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모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 운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기별뿐만이 아니라, 주제별, 운동별, 지역별 등 다양한 형태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1.2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의 특징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E-book을 살펴보면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많은 공적 입증 자료가 멸실되고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1995년 광복 50주년 이후부터 사학 전공자로 국내외 민간 사료수집위원을 위촉하여 사료수집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2005년 광복 60주년에는 사료수집·분석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독립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DB화를 하면서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였다.

2004년부터 이 수집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포상 신청자, 전문연구자, 일반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인 ‘공훈 전자자료관’을 구축하였고 2016년까지 1,934,012 명의 독립 운동 공적 입증자료와 포상심사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과 분류 체계의 필요성

2.2.1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의 특징

『기록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매뉴스크립트는 동일한 출처를 가진 개인이나 가문의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렇게 모인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동일한 출처를 가졌다는 점에서 기록군(record group)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록군은 주로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어떤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모은 인위적인 기록물 컬렉션으로 생산 출처별로 이관되거나 입수되는 아카이브즈와 구분되는 개념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기록물들을 연관된 파일구조로 만드는 데에 아키비스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하여 이루어진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 독립 운동의 전체 흐름과 역사적 맥락에서 생산된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2 독립 운동 기록의 분류 체계 필요성
기록물 분류의 목적은 흐트러진 기록물 덩어

리를 정리하여 기록물이 필요할 때 기록물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체이며 매뉴스크립트는 한 시기에 완성된 고정된 대상이 아니고, 그 기록을 보고 향유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기록이 생성되거나 수집되거나 묶임으로써 그 자체에 관련된 새로운 집합적 기억을 생산한다.

국가보훈처에 소장된 독립 운동 기록은 시기별, 장소별, 운동별 독립 운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수집되어 다양한 출처의 기록물로 구성되는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독립 운동 기록은 역사적 맥락에서 생산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 운동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독립 운동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가치를 통해서 생산된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은 다양한 수집 기관에서 수집된 매뉴스크립트로 이러한 특징이 분류 체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용자가 기록물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독립 운동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 현황

3.1 국외 현황

3.1.1 아일랜드 국립 기록원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에 걸쳐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의 식민지화 정책을 펴면서, 잉글랜드

와 스코틀랜드로부터 개신교(Protestantism) 신도들을 아일랜드 지역에 강제 이주시켰다. 아일랜드에서도 19세기에 이르러 민족주의 사상과 독립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16년 우리나라의 3·1만세운동과 비슷한, 부활절 봉기(1916 Easter Rising)를 기점으로 아일랜드 전역의 독립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식민 지배, 내전과 남북의 분리 등 아일랜드는 일제 식민지하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다.

아일랜드 국립기록원은 유럽 전역의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Archives Portal Europe을 관리하고 이 사이트와 포털 자체에서 검색할 수 있는 컬렉션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도구를 통해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들의 계층구조, 내용, 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컬렉션 내부의 정리 체계는 검색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를 검색하

면 92개 관련 기록물을 보여주며 <표 1>과 같이 기술과 계층 구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립 기록원의 기록물 분류 체계는 정리 작업에 있어 필요한 출처 및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수직적으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며, 이렇게 형성된 기록계층별로 집합적 기술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립기록원 관련기관으로 소개된 군 기록 보존소(Military Archives) 아카이브는 다양한 컬렉션별로 구성되었는데, 컬렉션 내부의 정리체계는 검색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독립 투쟁과 관련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군 기록보존소는 온라인 컬렉션과 Reading Room 컬렉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장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성과 기록유형 및 매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1.2 인도 국가기록원

영국은 1600년대 초 인도를 식민지로 확보하였는데, 서양사상에 자극을 받은 인도의 지식

<표 1> 아일랜드 국립기록원 기록물 기술과 계층구조

번호	기록물 명	기술 수준 (Level of description)	계층 구조 (Hierarchy browser)
No 1	50th Anniversary of the Easter Rising	F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ncluding predecessor and successor bodies Fonds DFA Fonds contains 48 parts + 📁 Embassy of Ireland to Denmark Sub-fonds DFA/DK Sub-fonds contains 11 parts + 📁 Protocol files Series DFA/DK/2 Series contains 21 parts 📄 50th Anniversary of the Easter Rising File 2006/59/7
Title: 50th Anniversary of the Easter Rising		Reference: 2006/59/7	
Date: 1966-1968		Creator: Embassy of Ireland to Denmark	
Extent: 1 file		Language: English	
Level of description: file			

출처: <<http://nai-web.adlibhosting.com/Details/archive/110036677>> [cited 2018. 5. 22]

〈표 2〉 군 기록 보존소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션 특징

구분	기록 컬렉션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온라인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도면 컬렉션 - 기술 기록 컬렉션 - 증언 진술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부활절 봉기(1916.4.24. -1916.4.29. Easter Rising), 1916편지 및 1916 년의 혁명기 주제 강의 프로젝트 등 - 출처별 컬렉션: 군 역사국(Bureau of Military History, 1913-1921), 아일랜드 의용군(The Irish Volunteer, 1914-1916), 육군 연금 국부대 인구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도면 모음 - 시청각기록: 사진, 오디오, 동영상 자료 - 신문스크랩(Press Cuttings) - 정부파일, 법률 문서 - 잡지, 팸플릿, 포스터 - 그림 및 스케치, 편지 - 기념 출판물 - 편지 - 디지털화 파일(PDF) - 군 아카이브 플리커 (https://www.flickr.com)
Reading Room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스크랩(Press Cuttings) - 박물관 컬렉션 - 보고서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아일랜드 방위군 신문 스크랩, 육군 항공부대 항공기, 피난민 보고서, 내전(Civil War, 1922-1925), 긴급 방위 계획(1939-1946) 등 - 출처별 컬렉션: 아일랜드 방위군, 아일랜드 육군 항공부대, 연락담당 사무소(Office of the Chief Liaison Officer), 육군, 국방부, Coastal Defence Artillery(해안포병대), 미국 군대 사절단(Military Mission)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스크랩(Press Cuttings) - 종이 보고서, 회의록 - 수집 문서 - 편지 및 메모 - 사진 인쇄물 - 지도, 도면 및 도면 - 제본, 출판 소책자, 전단지 및 잡지 - 디지털화 파일(PDF)

인들은 각종 종교적, 사회적 개혁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1885년에 창립된 인도국민회의는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초기에는 영국정부에 건의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1905년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 1859. 1.11~1925.3.20) 총독의 반동정책으로 민족주의 운동은 급진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20년 이상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던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1869.10.2~1948.1.30)는 1920년대 초 인도 국가의회당(Indian National Congress Party)을 영국 식민정치에 대항하는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인도 국가기록원은 2015년 3월 11일, 125주년 기념행사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인 Mr.Mahesh

Sharma가 'Abhilekh Patal' 검색 웹 포털을 런칭하였으며, 인도 국립문서보관소가 보유한 270만 개 이상의 파일에 대한 참조 매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62,617점이 넘는 디지털화된 기록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구성은 온라인 레퍼런스 미디어와 디지털 컬렉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리고 디지털 컬렉션을 선택하면, 온라인 레퍼런스 미디어로 필터 하여 확장검색이 가능하다.

3.1.3 중국 제2역사 당안관(the Second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SHAC)

중국의 국가 기록보존소 중 하나인 SHAC에는 중화민국시기(1912-1949) 동안 모든 중앙

〈표 3〉 Abhilekh Patal 포털 구성과 디지털 컬렉션 특징

구분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온라인 레퍼런스 미디어	- Abhilekh Patal 8가지 필터별로 구분하며, 각 필터를 조합하여 검색 가능 1) 범주별: 공공기록, 개인 기록, 지도제작상의 기록, 오리엔탈 기록별로 검색, 2) 키워드: 인명별 검색 3) 문서유형별: 디지털화 유무 구별 검색, 4) 부서별, 5) 장소별 6) 연도별, 7) 디지털화된 컬렉션, 8) 기록 내용별: 편지, 뉴스 기사 등	- 보고서, 메모, 편지, 뉴스 기사 - 디지털화 파일(PDF)
디지털 컬렉션	- 지도제작상의 기록(Cartographic Records) 컬렉션 - 출처별 컬렉션: 국방부(Defence) 컬렉션, Education & Health 컬렉션, Home Education 컬렉션, Home Index 컬렉션, Home Political 컬렉션, Ministry of Education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Dr. Rajendra Prasad 컬렉션, Kasturbhai Lalbhai 컬렉션, 마하트마 간디 컬렉션, P.K. Malaviya 컬렉션, S.C. Dixit 컬렉션, Oriental Records 컬렉션, 개인 기록 컬렉션 (마하트마 간디 등), 공공기록 등	- 지도, 도면 - 편지, 노트, 인터뷰 문서 자료 - 서적 사본, 도서 자료 - 수집 기록 - 사진

정권과 그 하급 기관의 원본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8년 말까지 948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약 1,800,000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경 임시 정부와 남부 혁명 정부 기록으로 중화민국 정부 (난징 임시 정부)는 1912년 1월 1일 난징에서 설립되었으며, Sun Yatsen 박사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Sun Yatsen이 작성한 허가, 서신 및 문서, 중국 민족주의 당 (KMT) 제 1차 및 2차 전국 회의 자료를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KCP)과 북부 탐험 및 연합 전선 (United Front)에 관한 문서 등이 있다.

둘째, 북경 국가 정부의 기록으로 1912년 4월 1일, Sun Yatsen은 베이징의 Yuan Shikai에게 대통령직을 제안하였으며, 16년 동안 베이징은 군벌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또한 SHAC에는 군대 간의 내전과 국민의 큰 고통을 반영하는 상당수의 기록인 55개 클래스와 130,000개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난징 국가 정부의 기록으로 중국 난징에서 장개석이 창설한 KMT 정부는 1927년 4월부터 1949년 중국 공산당의 해방까지 22년간 중국 통치와 관련하여 많은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이 기록물은 1,400,000개 파일과 600개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KMT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및 문화 업무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꼭두각시(Puppet Regimes) 체제 정부의 기록으로 1931년 9월 18일 사건 발생 후 일본군은 동북을 점령하였다. 그 후 일본인들은 점령 지역에서 꼭두각시 체제를 수립하고 지원하였다. 왕징위 정부와 같은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는 92개의 수업으로 총 10만개의 파일을 만들었으며, 이 파일은 일본이 1945년 8월에 항복한 후 KMT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자료들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인함과 그들이 저지른 극악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상의 국외 아카이브 컬렉션 사례를 종합하여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4〉 중국 제2역사 당안관 디지털 아카이브 특징

콘텐츠 구분	구 성	기록유형 및 매체	특징
공화당 일러스트레이션	- 주제별 컬렉션: 중국 연대기별 특징적인 사진 구성 - 1911-1915, 1916-1920, 1920-1949 구분	- 사진 이미지	- 연대기별로 사진 이미지와 설명제공
아카이브 검색	- 출처별 컬렉션: 소장처명, 생산기관명, 검색가능 - 정부, 군사, 운송, 교육 및 농업 및 상업 분야의 일부	- 원문 이미지 파일	- 소장처는 모두 북양 정부 기록 보존소
중화민국 사진	- 주제별 컬렉션: 중화민국 대표사진, 특정사진 (예: 무장반란) 사진 등	- 사진 이미지	- 관련 기록물 연계 서비스 없음
가상 전시홀	- 가상 전시홀 프로그램 설치 후 전시 가능	- 가상 전시화면	

〈표 5〉 국외 아카이브 컬렉션 비교

구분	아일랜드	인도	중국
기관	- 국립 기록원(National Archives) - 군 기록 보존소(Military Archives)	- 국립 기록원(National Archives)	- 제2역사당안관(the Second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SHAC)
컬렉션 구성	1) 온라인 컬렉션 - 지도, 도면 컬렉션 - 구술 기록 컬렉션 - 증언 진술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 출처별 컬렉션 2) Reading Room 컬렉션 - 신문스크랩(Press Cuttings) - 박물관 컬렉션 - 보고서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1) 온라인 레퍼런스 미디어 - 범주별(공공기록, 개인 기록, 지도제작상의 기록, 오리엔탈 기록별로 검색) - 키워드: 인명별 검색 - 문서유형별 - 부서별/장소별/연도별 - 디지털화된 컬렉션 - 기록 내용별: 편지, 뉴스 기사 등 2) 디지털 컬렉션 - 지도제작상의 기록(Cartographic Records)컬렉션 - 출처별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1) 공화당 일러스트레이션 - 주제별 컬렉션(중국 연대기별 특징적 사진 구성) 2) 아카이브 검색 - 출처별 컬렉션(소장처명, 생산기관명 검색가능) - 정부, 군사, 운송, 교육 및 농업 및 상업 분야의 일부 3) 중화민국 사진 - 주제별 컬렉션 4) 가상 전시홀 - 주제별 컬렉션
기록물 유형 및 매체	- 지도, 도면 모음 - 시청각기록: 사진, 오디오, 동영상 자료 - Press Cuttings(신문스크랩) - 정부파일, 법률 문서 - 잡지, 팸플릿, 포스터 - 그림 및 스케치 - 편지 및 메모 - 수집 문서 - 제본, 출판 소책자, 전단지 및 잡지 - 디지털화 파일(PDF) - 지도, 도면 및 도면	- 보고서, 메모, 편지, 뉴스 기사 - 디지털화 파일(PDF) - 편지, 노트, 인터뷰 문서 자료 - 서적 사본, 도서 자료 - 수집 기록 - 사진	- 사진 이미지 - 원문 이미지 파일
특징	1) 주제별, 출처별 컬렉션과 기록물 유형별 컬렉션(지도, 도면/구술기록/증언 진술/신문스크랩(Press Cuttings) 컬렉션) 2) 계층적 기술정보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출처별로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임 3) 팸플릿형 검색도구 탐색, 컬렉션계층 목록에서 검색도구 링크 4) 교사를 위한 주제별로 이미지 링크서비스를 통해 혁명기에 관한 역사 학습 발전을 위한 검색 서비스 5) 생존자 등 인터뷰자료와 증언 자료 색인 제공	1) 주제별, 출처별 컬렉션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상의 기록 컬렉션 제공 2) "Abhilekh Patal" 검색 웹 포털 및 기밀 해제 된 파일에 대한 검색 포털인 "www.netajipapers.gov.in"을 오픈 3) 관련 리포지터리 제공 - Netaji Subhas Chandra Bose - Sardar Patel: 무저항 불복종 운동가	1) 주제별, 출처별 컬렉션 구성 2) 아카이브 검색 콘텐츠는 "http://www.shac.net.cn:8081/s-hac/res/layouts/login.jsp"검색 포털 서비스로 연계 3) 가상 전시홀 제공 4) 이미지 문서 파일 설명 부족, 일러스트레이션 등 사진 이미지 관련 기록물 연계 제공 필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제별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 정리와는 달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제 검색과 토픽별로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온라인 디지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상 전시홀을 만들어 마치 전시관에 온 것처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록물의 다양한 자료 유형별 매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구술 및 증언 컬렉션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오디오,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일랜드와 인도는 식민지 운동과 관련하여 지도·도면 컬렉션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출처별 컬렉션을 구성하고, 원질서를 존중한 정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계층 구조가 фонд(Fonds)-서브 фонд(Sub fonds)-시리즈(Series)-철(File)로 구성되며 ISAD(G)에 따라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Abhilekh Patal 컬렉션을 살펴보면 기록물의 기술을 통해 시리즈와 파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소장처명도 함께 제시하여 출처 및 원질서에 따른 계층 구조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기술정보를 마련하면, 출처별로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2 국내 현황

3.2.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생산맥락에 근거해서 기록물의 집합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계층을 나누어 디렉터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록물의 구조와 내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계층별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 검색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의거하여 분류, 기술한 결과를 서비스 한다. 즉 기록물을 조직과 기능에 근거한 군(group)/계열(series)로 분류하고 해당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의 내역을 기술규칙에 의거 기술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콘텐츠 유형별 목록 '컬렉션'에 독립 운동관련 판결문을 구축하였다. 이 '컬렉션'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형사사건 판결문 중 일제강점기하 독립 운동관련 판결문 약 19,000여 건에 대한 원문정보, 판결주문 해제내용, 사건개요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콘텐츠이다.

컬렉션의 구성은 <표 6>과 같이 상세 검색, 본적·주소검색, 죄명 검색, 유형별 검색, 관련 자료로 되어 있는데 '시기별 검색'은 각 지역을 검색하고 운동 유형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 항목'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으로 연결 링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독립 운동 관련 판결문은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3.2.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1987년부터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에 근거하여 사료수집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사료의 수집 및 정리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 및 정리에

〈표 6〉 국가기록원 독립 운동관련 판결문 컬렉션

콘텐츠 구분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특징
상세 검색	- 키워드, 이름/별명, 판결기관, 판결 날짜, 출신지 (본적) - 발생 시기(전체, 1901년 이전, 1910~1920, 1920~1930, 1930~1940, 1930년 이후로 구분)	- 문서(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 마이크로필름(M/F) - 전자파일(e-book)	- 사건 개요 설명 - M/F 온라인 서비스 신청가능 - 원문보기와 번역본보기를 함께 제공
인명 검색	- 가나다순, 이름/별명, 판결 날짜 - 발생 시기(전체, 1901년 이전, 1910~1920, 1920~1930, 1930~1940, 1930년 이후로 구분)	- 문서(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 마이크로필름(M/F) - 전자파일(e-book)	- '상세 검색'과 동일한 검색값 도출 - 시기별 상세 구분 검색
본적·주소 검색	- 시/도 검색, 시/군/구 검색 ※ 국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국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불명	- 문서(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 마이크로필름(M/F) - 전자파일(e-book)	- 국내 및 국외로 구분 검색 - 시기별 상세 구분 검색 - '상세 검색', '인명 검색'과 동일한 검색값 도출
죄명 검색	- 전체, 가~하 - 가택침입, 감금, 강도, 강도 살상인, 강도 살인, 강취, 건조물손괴, 건조물침입, 경찰법 처벌령 위반 등	- 문서(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 마이크로필름(M/F) - 전자파일(e-book)	- 대표적 죄명 구성 검색
시기별 검색	- 시/도 검색, 시/군/구 검색 ※ 국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국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대만 - 전체/의병운동 전기/중기/후기/기타	- 문서(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 마이크로필름(M/F) - 전자파일(e-book)	- 본적·주소 검색과 중복 - 의병운동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 검색

관한 규정([국사편찬위원회규정 제173호, 2015. 3.5., 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새로 개편된 '전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아카이브 컬렉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사료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의 사료 목록을 그 출처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사료의 계통과 맥락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 사이트이다. 그리고 국가별 및 국내 지역별로 그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된 사료 목록을 열람할 수 있고, 주제별 사료 목록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사료에 접근할 수 있다. 아카이브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사료출처별 열람' 체계로 국내·외 사료와 주제별 사료로 구

별된다.

자료의 구성은 사료군(Group), 사료계열(Series), 하위사료계열(Sub-Series), 사료철(File), 사료건(Item)의 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각 자료들은 그 규모나 특성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자료가 '사료군 → 사료계열 → 하위사료계열 → 사료철 → 사료건'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3.2.3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한국독립 운동사를 비롯한 한국 근현대사 관련 약 73,000여 점의 자료와 43,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각종 독립 운동 자료총서와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 논문 등의 편찬사업과 7개의 전시관을 통한 전시, 그리고 국민 교육의 장으로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수집은 독립기념관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인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근거에 따라 관련 사료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 운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디렉터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콘텐츠 자료'는 전체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해석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디지털 아카이브를 살펴본 결과 주제별, 기록물 유형별, 출처별 등 혼재되어 있었으며 특징적인 점은 '원문 정보' 중 '마이크로 필름 자료'를 시대 및 주제어별로 분류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이다. 여기에서 '주제어별'은 관련 주제를 세분하여 52개로 나누

어서 구분하였으나, 운동별, 지역별, 정치·경제·사회, 언론출판 등 여러 가지 주제가 혼재되어 있어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정리하여 주제를 대중소로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 자료' 안에 기증자료 컬렉션 구축과 멀티미디어 자료인 음성 및 동영상 자료가 있다는 점,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 분류 체계라는 것이 특징이다.

3.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조 2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 민주

<표 7>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 정보시스템 구성

구분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콘텐츠 자료	한국독립 운동의 역사	- 도서
	대한민국임시정부	- 단행본, 연속간행물, 원고/수기, 공문서, 서한, 선언서/격문/전단, 신문, 기타
	독립 운동가 자료	- 단행본, 보고서, 수기, 일기, 메모장, 신문, 형무소 자료, 기타
	독립 운동사적지 보고서	- 발간자료 단행본
	소장 자료 사진집	- 사진자료집 단행본
	즐거 찾는 자료	- 태극기, 독립선언서, 독립 운동가 유목, 독립 운동가 인장, 민족기록화(그림)
	주제별 사진 자료	- 의병, 단체, 사건별로 사진 이미지 구성
	기증자료 컬렉션	- 사진, 기증관련 자료 검색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 강제동원자 명부, 3.1운동 피살자 명부,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등 검색도구
	멀티미디어 자료	- 음성자료, 동영상 자료
원문 정보	미주 흥사단 자료	- 단행본, 연속간행물, 공문서, 사문서, 서한, 신문, 영수증, 기타
	마이크로필름 자료	- 시대, 주제어별로 분류
	만주지역 독립 운동	- 길림성 당안관 수집 자료(디지털화 문서)
	선언서류	- 3.1독립선언서(디지털화 문서)
	의병자료	- 보고서 등 문서
	제한선교사 보고문건	- 편지
	신문자료	- 구망일보, 국민보, 권업신문, 단산시보, 대공보(중경),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대한민보, 독립신문, 북미사보, 선봉, 신한국보, 태평양주보, 한민, 황성신문 등

화운동 사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내 민주화운동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사료관을 구축하여 컬렉션 등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이라는 주제별 아카이브 분류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의 브랜드인 오픈 아카이브는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픈 아카이브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사료컬렉션, 사진 아카이브, 사료 콘텐츠, 구술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초기부터 수집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는 구술자료 85건을 서비스 영상을 제작하여 추가로 공개하고 있는데, '구술 아카이브' 분류 체계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3.2.5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2011.5.25.에 5.18기

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된 후 2015. 5.13.일에 기록관을 개관하여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 2015.12. 28.] 제3장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록물처럼 국내 민주화운동 중 5.18이라는 운동에 관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관을 구축하였고, '운동'이라는 주제별 아카이브 분류 체계를 살펴볼 수 있어서 국내 사례로 조사하였다. '5·18 아카이브'는 다양한 경로로 기록물이 수집되는 수집형 보존 기록관의 성격을 띤다.

5·18기록물은 출처가 다양하게 수집되어 개개의 기록물들은 그것을 생산한 출처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출처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5·18 아카이브' 기록계층에서 기록물 건(Item)을 살펴보면 출처와 주제별 분류 체계가 반영되었고, 생산 시기와 생산자 정보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표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아카이브 컬렉션 분류

구분	세부 분류
4.19혁명	- 서울, 대구, 부산 등 지역별로 구분
한일협정 반대 운동	- 대학교, 고등학교로 구분
3선 개헌 반대 운동	- 대학교, 고등학교, 언론인 구분
6.10 민주 항쟁 운동	- 서울, 대구, 부산 등 지역별로 구분
1970년대 학생 운동	- 대학교, 지역별로 구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 서울의 봄
노동 운동	- 구로 동맹파업, 노동운동 사건, 노동운동 생애사, 노학연대로 구분
농민 운동	- 60, 70년대 농민운동, 사제들의 활동, 함평고구마사건, 춘천 가톨릭 농민회 사건으로 구분
빈민 운동	- 1970년대 빈민운동, 광주대단지 시위사건,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건 등으로 구분
인권운동	- 엠네스티 운동
여성운동	- 여성운동
재야운동	- 지역운동, 부문운동으로 구분
해외민주인사	- 아시아, 민주, 유럽으로 구분

즉 5·18기록물 분류는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출처 분류와 주제별 분류 체계가 같이 이루어졌다. '5·18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물의 전체적인 계층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통합검색을 한 결과, 기록물 철(File)과 기록물 건(Item)의 상세 정보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5·18 아카이브 기록물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통합 검색, 주제별 검색, 시기별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3.2.6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458호, 2018.5.1.,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업무 중에 포상 및 등록을 위한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독립 운동관련 기록물의 물리적인 정리 및 분류 체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공훈전자자료관' 아카이브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5·18 아카이브 기록 분류 체계

구분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검색 - 주제별 검색: 언론, 인권, 문화, 노동, 예술, 정치, 교육, 미분류로 구분 - 시기별 검색: 5·18발생이전, 1988-1989 광주청문회, 1990-99년 광주특위, 5·18발생당시, 5·18관련 재평가기간, 2000-09년 광주특위, "사건 후 피해수습"(80.5.28~82.12.31), 6.29 민주화 선언 등 - 유네스코 기록물: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일기,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구술자료), 흑백필름 및 사진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뉴스 브리핑 자료 - 서신, 사진첩, 도서자료 - 메모, 일기 - 회의록, 구술 자료, 필름 자료
사진기록	- 현재 구축되지 않음	
영상기록	- 6개 영상기록이 있으나, 2개 관련자료 외 편집 제작한 영상기록임	
구술기록	- 현재 구축되지 않음	
전자자료 총서	- 통합검색 포털 연결	- 전자자료

<표 10> 공훈전자자료관 아카이브 기록 분류 체계

구분	구성	기록유형 및 매체
원문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류: 고등경찰요사, 독립 운동사, 독립 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증언 자료집으로 구분 - 일반문서류: 사상월보(구), 사상휘보, 일제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자료한국 독립 운동,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조선문제자료총서, 조선소요사건관계 서류, 폭도에 관한 편제,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해외의 한국독립 운동 사료로 구분 - 신문류: 독립신문, 동방전우, 매일신보, 신한민보로 구분 - 행정자료: 판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일반문서, 도서자료 - 신문, 판결문 - 뷰어보기 제공 - 메타데이터 보기 제공
독립 운동사 연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도/월/일, 독립 운동사건, 구분, 연표보기로 구성 ※ 간단한 역사관련 정보만 기술 	- 웹페이지에 관련 정보 기술
독립유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성명, 한자명,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검색 정보 제공 - 독립유공자 공훈록: 성명, 한자명,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검색 정보 제공 - 이달의 독립 운동가: 공적상세, 관련 콘텐츠 제공 - 독립유공자후손찾기: 성명, 한자명,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본적 검색 정보 제공 	- 웹페이지에 관련 정보 기술

국가보훈처에서는 DB구축 목적이 독립유공자 포상 발굴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달리 공훈전자자료관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해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색방법은 한글 및 한자 유공자명, 본적(지역별), 포상훈격별, 운동계열별, 포상년도, 인명색

인(가~하),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국적(내·외국인) 등을 선택하거나 입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독립 운동 기록 분류 체계 개발을 위하여, 기록물 실물의 분류 체계 분석이 아닌 아카이브 컬렉션 분류 체계와 콘텐츠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국내 운동 기록 아카이브 분류 체계 비교

구분	구축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성 특징	기록유형 및 매체	검색 도구
국가기록원	- 독립 운동 판결문 컬렉션	- 출처별 컬렉션: 판결 기관 - 기록 유형별로 구분	- 판결문 - 형사사건부 - 집행원부 - 수형인명부	- 컬렉션 내에서 검색가능 - 분류기준별 상세검색, 인명검색, 본적·주소검색, 죄명검색, 시기별 검색(의병전·중·후기) - 키워드 검색 - 인명검색(가나다순)
국사편찬위원회	- 전자자료관	- 출처별 컬렉션: 국내, 국외 사료 수집출처 - 주제별 컬렉션: 구술자료, 민주화운동자료	- 구술자료 - 단행본 - 박물관자료 - 연속간행물 - 사진시각자료 - 녹음영상자료 - 지도도면	- 통합검색(사료건, 철) ※ 계층정보 제공, 국내·외 및 주제 결과 정보 제공 - 상세검색(키워드, 범위, 소장처, 사료구분별 검색) - 유의어 적용 - 참조코드 A-Z, 가~ㅎ
독립기념관	- 한국독립 운동정보 시스템	- 출처별 컬렉션(대한민국임시정부) - 주제별 컬렉션(독립운동가자료, 독립운동사적지보고서, 주제별 사진자료) - 기증자료 컬렉션	- 도서자료 - 보고서 - 사진집 - 신문자료 - 기증자료 - 마이크로필름 - 음성, 동영상 자료	- 디렉터리 서비스 - 통합검색(소장 자료, 전자자료, 소장도서, 독립기념관 간행물, 원문정보, 콘텐츠 자료) - 검색범위, 자료명, 발행처, 색인어, 연도별 검색 - 서지정보, 원문이미지 제공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 자료관(Archives) 오픈아카이브	- 주제 컬렉션: 사료컬렉션(주요 민주화운동 주제별 분류) - 사진 아카이브 - 구술 아카이브	- 보고서 - 사진 - 음성자료 - 박물관자료(포스터 등)	- 상세검색: 제목(생산자명, 등록자명, 기증자명), 유형(문서류, 사진필름류, 음성영상류, 박물관), 생산일자 검색 - 관련어 제시 - 정렬기준과 검색범위 선택
5.18기념재단	- 5.18 아카이브	- 주제별 컬렉션: 언론, 인권, 문화, 사회, 노동, 예술, 정치, 교육 등 검색/유네스코기록물 검색	- 일반문서 - 간행물 - 사진, 영상, 구술 - 만화 - 기증 기록물	- 통합검색 - 기록물 철, 건 검색 - 분류기준별 주제별, 시기별, 유네스코기록물 검색
국가보훈처	- 공훈전자자료관	- 출처별 컬렉션 없음 - 주제별 컬렉션 없음 - 기록유형별로 구분	- 일반문서 - 도서자료 - 신문 - 판결문, 범죄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 등 - 사진자료 - 간행물 - 녹취록	- 통합검색 - 기록유형기준별 상세검색 - 상세검색(독립유공자 공훈록): 운동계열, 포상훈격, 인명색인(가나다순) - 상세검색(독립유공자 공훈록 외): 책명, 항목명(인명, 단체명, 지명 및 장소, 사건 및 활동)

이를 정리하여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 운동 컬렉션 기반 분류 체계의 기준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운동 컬렉션의 '출처별'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국외 사례 중에서 아일랜드 국립기록원은 Fonds(펀드)-서브펀드(Sub fonds)-시리즈(Series)-철(File)로 구성되며, ISAD(G)에 따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별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례에서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출처별 컬렉션과 주제별 컬렉션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은 국내의 사료 목록을 그 출처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사료의 계통과 맥락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출처별 컬렉션을 구성하여 계층적인 기술 정보를 마련하면 출처별로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보훈처의 독립 운동 기록을 분석한 후, 출처에 따른 독립 운동 기록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고, 공훈전자사료관 '출처별' 컬렉션 기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둘째, 독립 운동 컬렉션의 '주제별'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국외 사례 중에서 인도 국가기록원은 인도의 Iron Man이라 불리는 '사르다르 파텔(Sardar Patel)'과 관련한 일대기를 테마로 '주제별 컬렉션' 리포지토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리포지토리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중요 시기별로 사건과 장소를 표시하고 사진과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며 관련 메타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연대기별 특징적 사건을 구성하여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컬렉션 기반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은 주제별 사료 목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Archives)은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주화 운동 및 사건과 관련된 '주제별' 분류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은 독립유공자 정보에서 운동계열 등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독립 운동 기록의 '주제별' 분류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자료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독립 운동 기록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공훈전자사료관 '주제별' 컬렉션 기반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제 검색과 토픽별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온라인 디지털 방식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중국처럼 가상 전시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 유형별'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 유형별 컬렉션 구성은 국내외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국외 사례 중에서 아일랜드의 컬렉션 기반 분류체계는 다양한 자료 유형을 통하여 예를 들어 군대 병영 지도 및 도면과 인터뷰 자료인 음성자료, 동영상, 사진 등 그리고 역사적인 보도 자료인 Press Cuttings, 병사의 역사적인 사진을 flicker에서 온라인 사진 갤러리로 볼 수 있도록 연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도는 식민지 운동과 관련하여 지도·도면 컬렉션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의 경우, 국가기록원의 컬렉션 기반 분류체계는 수형기록물 관련 기록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의 '원문사료실'의 기록물은 자료 형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

고 존재되어있다. 또한 독립 운동자 관련 구술 및 음성기록은 없고, 녹취록 문서 형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의 독립 운동 기록의 '자료 유형별' 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현재 공훈전자자료관에 존재 되어있는 여러 매체 유형을 정리하여 '자료 유형별' 컬렉션 기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4. 공훈전자자료관 분류 체계 개발

국가보훈처는 독립 운동 기록물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왔고 이를 선별하여 원문을 디지털화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합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인 '공훈전자자료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록물 중 '독립 운동'과 관련한 분류 체계를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새롭게 전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류 체계 설계 과정에서 시기별로 따로 전개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제별 분류 체계 안에서 독립 운동 시기별로 분류가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첫째, '출처별' 분류 체계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의 콘텐츠 '자료 찾기-출처별 컬렉션: 자료출처별 열람'에서 자료 구성의 5단계 계층을 참고하여 200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독립 운동 관련 수집 자료 목록'(출처: http://www.mpva.go.kr/info/info600_view.asp?ID=5836&subCate=4)을 토대로 생산기관별로 재구성하였는데 <표 12>와 같다.

'출처별' 분류 체계에서 '출처'는 정부 기관,

지자체, 대학교, 기념사업회, 민간단체, 언론 기관, 국외 기관, 기타 기관 8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에 해당하나, 수집 목록에서 '운동관련 기념사업회'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앞으로도 타 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하였다. 그리고 분류기호에서 기록물군은 영문 2자리로 각각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 'GA', 지자체(Local Government) 'LG', 대학교(University) 'UN', 기념사업회(Association) 'AS',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 'PR', 언론기관(Press Agency) 'PA', 국외기관(Foreign Institution) 'FR', 기타 기관 (et. al) 'EA'로 하였다. 또한 알파벳 O와 I는 숫자 0과 1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기록물군의 영문 기호로 사용하지 않았다. 출처별 분류 체계 코드는 2자리로 하였는데, 나중에 수집처의 확장이 필요하면 세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기록물계열은 대분류인 기록물군 영역에서 각각 명시된 순서에 따라 01부터 차례로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였으며, 이때 기타 자료나 출처 미상 자료는 99로 표현하였다. 기록물철도 같은 방법으로 세 자리 숫자로 부여하였고, 기타 자료나 출처 미상 자료는 999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 국가기록원에서 첫 번째로 수집한 "권배억 판결문" 기록물 철의 경우 분류기호는 'GA01001'로 부여하게 된다.

둘째, 출처중심의 분류 체계와 함께 '주제별' 분류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먼저 주제어 추출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물 중 '독립 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구축한 DB '공훈전자자료관'에서 국가유공자 정보

〈표 12〉 독립 운동 기록 출처별 분류 체계

기록물군(Group)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구 분	코드	기관명	코드	
정부 기관	GA	국가기록원	01	- 권배역 판결문 등 - 간도에서의 불령선인단 상황 등 - 「폭도에 관한 편책」(마이크로필름 17롤)
		국립중앙도서관	02	- 3.1운동관련 지역별 간행물 1-경기도 1-1 - 3.1운동관련 지역별 간행물 1-경기도 1-2
		국사편찬위원회	03	- 상해가정부 문서 중 「독립 운동에 관한 건」(1919.5.2)1~3권 「광주학생운동 신문조사」 - 한국독립 운동사자료(독립유공자공적조사위원회)
		국회도서관	04	- 일제강점기 인명록 1: 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김경현 편, 민족문제연구소, 2005) - 日本外務省陸海軍省文書 第2輯: 韓民族運動史料, 中國篇(국회도서관, 1975)
		부산구치소	05	- 부산구치소 소장 명적표(名籍表)
		대검찰청	06	- 판결문(목포법원지청, 1910)
		독립기념관	07	- 3.1재현운동지(三一再縣運動誌)(1969) - 유자명(1894~1985) 중국어 친필회고록
지자체	LG	전라남도 면사무소	01	- 전남 보성군 응치면 범죄인명부 - 전남 여수시 울촌면 범죄인명부
		경상북도 면사무소	02	- 경북 상주군 가천면 범죄인명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범죄인명부
대학교	UN	고려대학교	01	-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독립 운동관계 비밀기록 - 『朝鮮重大思想事件經過表』(조선총독부경무국, 1940)
		경상대학교	02	- 태평양잡지 7-1(1925.1), 7-3(1925.6)
기념사업회	AS	안동독립 운동기념사업회	01	- 경상권 독립 운동 사료수집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	02	- 독립 운동가 문양목 평전(최재학,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 2015)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03	- 경상북도 고령군 국채보상운동 조사연구 보고서(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15.12)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백범학술원	04	- 한국속간 독립신문(백범학술원, 2012) -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11집
민간단체	PU	무등역사연구회	01	- 전라권 독립 운동 사료수집
		한국토지주택박물관	02	- 진중일지
		의암학회	03	- 국역 의암집 제1권(유인석, 2006)
		제주문화원	04	- 부해문집, 해은문집
		(사)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05	-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연구(김승태, 2006) - 식민권력과 종교(김승태, 2012)
		개인기록물(후손기증)	06	- 「취정록(의병장 김태원 일기)」 등 - 박병선 박사 기증자료 수집 자료
언론 기관	PA	KBS	01	- 단파방송연락운동 - 관련인사 재판기록(유병은 편, KBS문화사업단, 1995)
국외 기관	FR	〈미국〉 하와이대학	01	- 박종수 회고록(1931), 독립(1948~1956), 동무 제1호(1920.8.1), 태평양주보(1941~1963), 대한인동지회문서(1935~1961)
		〈중국〉 북경도서관	02	- 조선의용대 통신 1-30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03	- 神戸市在住朝鮮人の現状: 昭和4年11月現在(神戸市社會課, 1930)
기타 기관	ET	향후 추가될 새로운 기관	01	...

인 '국가유공자 공적조서' 분류기준별 검색정보 '운동 계열'(출처: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List.do?goTocode=20001>)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정보시스템의 '한국독립 운동의 역사' 콘텐츠 자료(출처: <https://search.i815.or.kr/subContent.do>)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추출된 제1주제는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의열투쟁, 국외항일운동, 학생운동, 항일무장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 등 8개이다. 또한 주제어 항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추가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류기호는 운동(Movement)의 영문 대문자 두문자 M으로 하였으며, 제2주제어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셋째, '자료유형별' 분류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국가보훈처 수집 자료와 DB가 구축된 '공

훈전자사료관'을 참고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국가보훈처가 2002년부터 수집한 '독립 운동 관련 수집 자료 목록'에서 살펴본 유형을 정리하면 녹취록, 논문집, 단행본, 도서, 목록(집)류, 문서, 사진, 문집류, 색인집, 서적, 신문류, 신문잡지류, 이미지, 일기, 총서, 파일, 행형기록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공훈전자사료관' 원문사료실은 텍스트류, 일반문서류, 신문류, 행형자료류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문 알파벳 대문자 2자리로 분류기호를 부여하여 자료유형별로 <표 14>와 같이 17가지로 분류 항목을 만들었다.

'자료유형별' 분류기호는 각각 일반문서류(Documents) 'DC', 단행본(Book) 'BK', 총서(A Series) 'SE', 문집류(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CW', 목록(집)류(Catalogue) 'CA', 색인집(Index) 'DX', 논문집(Collected Papers)

<표 13> 독립 운동 기록 주제별 분류 체계

제1주제		제2주제		제1주제		제2주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의병운동	M1	전기의병	01	의열투쟁	M3	한말 순국·의열투쟁	01
		중기의병	02			1920년대 의열투쟁	02
		후기의병	03			만주지역 민족운동	01
애국계몽운동	M2	정치·사회운동	01	국외항일운동	M4	러시아지역 민족운동	02
		경제운동	02			중국관내 항일운동	03
		농민운동	03			미주지역 항일운동	04
		노동운동	04			일본지역 항일운동	05
		소년운동	05			6.10만세 운동	01
		청년운동	06	광주학생 운동	02		
		여성운동	07	항일무장투쟁	M6	만주지역 민족운동	03
		형평운동	08			러시아지역 민족운동	04
		언론운동	09	대한민국임시정부	M7	상해시기	01
		국학운동	10			장정시기	02
		교육운동	11			중경시기	03
		문화예술운동	12	3.1운동	M8	중부·북부	01
		종교계 운동	13			남부	02

〈표 14〉 독립 운동 기록 자료유형별 분류 체계

번호	매체유형	기 호	번호	매체유형	기 호
1	일반문서류(문서, 행정문서)	DC	10	동영상류	VD
2	단행본(도서, 서적)	BK	11	지도·도면류	MA
3	총서	SE	12	신문류	NP
4	문집류	CW	13	잡지류	JN
5	목록(집)류	CA	14	포스터	PS
6	색인집	DX	15	(행정)박물류	AR
7	논문집	CP	16	전자 기록물(이미지파일, 디지털 사본, MF필름, PDF 등)	ED
8	사진류	PH	17	일기류	DY
9	녹음자료(녹취록)	VR			

‘CP’, 사진류(Photograph) ‘PH’, 녹음자료(녹취록)(Voice Recording) ‘VR’, 동영상류(Video) ‘VD’, 지도·도면류(MAP) ‘MA’, 신문류(Newspaper) ‘NP’, 잡지류(Journals) ‘JN’, 포스터류(Poster) ‘PS’, (행정)박물류(Archival Objects) ‘AR’, 전자기록물(Electric Document) ‘ED’, 일기류(Diary) ‘DY’와 같다. 여기에서도 알파벳 O와 I는 숫자 0과 1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기록물군의 영문 기호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출처별 분류 체계에서 사용된 영문 기호와 동일하지 않게 조정하였다.

이렇게 출처, 주제, 자료유형의 기준으로 분류표를 설계하였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분류표간의 연결은 ‘출처-주제-자료유형’의 인용순서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3.1운동관련 지역별 색인-경기도』 기록물의 분류기호는 ‘GA-02-M8-01-DX’로 작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립 운동 기록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 기반 분류를 구체화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처별·주제별·자료유형별 컬렉션을 참고하고, 수집한 독립 운동 기록물로부터 관련 주제

어를 추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컬렉션을 〈표 15〉와 같이 제안하였다.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세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업무에도 활용하고 이용자가 포상자료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분류하였으며 최대한 검색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 수집 사업 목적의 최대 성과인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훈록’과 매월 기획 구성한 ‘이달의 독립 운동가’를 활용하여 ‘주제별’ 컬렉션과 연계하는 ‘스페셜 컬렉션’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5. 결 론

국가보훈처는 독립 운동 사료를 1969년부터 수집하여 2005년 통합DB시스템인 ‘공훈전자사료관’을 구축하여 독립유공자와 관련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훈전자사료관’은 소장 자료 목록을 통일된 원칙에 따라 정리 및 기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사료를 선별하여 원문을 디지털화한

〈표 15〉 독립 운동 기록물 공훈전자자료관 컬렉션 분류 체계(안)

구분	컬렉션 분류 기준	분류 체계		기록물 예시 및 특징
공훈전자자료관 컬렉션	자료유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문서류 - 단행본 - 총서 - 문집류 - 목록(집)류 - 색인집 - 논문집 - 사진류 - 녹음자료(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류 - 지도·도면류 - 신문류 - 잡지류 - 포스터류 - (행정)박물류 - 전자기록물 - 일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서〉: 제일동포 모국공헌의 발자취: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이민호, 제일본대한민국민단(2016)) - 〈문집류〉: 국역 의암집 제1권(유인석, 2006) - 〈목록(집)류〉: 중국관장만철자료목록 - 〈색인집〉: 한민족독립 운동사자료집 인명색인 1 - 〈신문류〉: 독립신문, 동방전우, 매일신보 등 - 〈잡지류〉: 사상회보, 사사월보(구) 등 - 〈녹음자료〉: 독립유공자별 증인 녹취자료, 예시: 광복군-안춘생, 김승곤 등 - 〈일기류〉: 안도라의 일기 등
	출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정부기관, 지자체, 대학교, 기념사업회, 민간단체, 언론기관) - 국외(미국, 중국, 일본 등) -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정부기관-국가기록원)〉 - 권배익 판결문 및 『폭도에 관한 편책』(마이크로 필름 17롤) 자료 ※ ‘출처별’ 컬렉션 분류는 이용자가 ‘주제별’ 및 ‘자료 유형별’ 컬렉션 검색시 동일 기록물 연계: 『폭도에 관한 편책』(주제별: 후기의병, 자료유형: 전자기록물, MF필름)
	주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운동 - 애국계몽운동 - 의열투쟁 - 국외항일운동 - 학생운동 - 항일무장투쟁 - 대한민국임시정부 - 3.1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병운동: 후기의병〉 - 장인환 의거 관련 미주지역 신문자료 ※ ‘주제별’ 컬렉션 분류는 이용자가 ‘자료유형별’ 및 ‘출처별’ 컬렉션 검색시 동일 기록물 연계 (자료유형: 신문류, 출처별: 국외-미국) ※ ‘스페셜 컬렉션’ 구축 연계 - 공훈록(독립유공자 공적조서) - ‘이달의 독립 운동가’ 인물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 독립 운동 기록물 중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분류 체계를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공훈전자자료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처별 분류 체계는 계층별로 구성하였으며 국내 사례 중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출처별 열람을 참고하여 200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목록’을 토대로 생산기관별로 재구성하였다. 출처는 정부 기관, 지자체, 대학교, 기념사업회, 민간단체, 언론 기관, 국외 기관, 기타 기관

8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출처별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관련 주제어에 따라 2차로 분류하였다. 주제어 추출은 국가보훈처 기록물 중 ‘독립 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공훈전자자료관’에서 국가유공자 정보인 ‘국가유공자 공적조서’와 분류기준별 검색정보 ‘운동 계열’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의열투쟁, 국외항일운동, 학생운동, 항일무장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으로 8개이다. 또한 분류기호는 독립 운동의 영문 대문자 첫 자리로 나타냈으며, 제2주제어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여 각각 M1~M8로 나타냈다.

셋째, 자료유형별 분류는 국가보훈처 수집 자료와 DB가 구축된 '공훈전자자료관'을 참고하여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일반문서류, 단행본, 총서, 문집류, 목록(집)류, 색인집, 논문집, 사진류, 녹음자료(녹취록), 동영상류, 지도·도면류, 신문류, 잡지류, 포스터류, (행정)박물류, 전자기록물, 일기류와 같이 17가지로 나누었다.

넷째, 각각 분류표를 연결하여 기술하는 방법은 독립 운동 '출처-주제-자료유형'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국가보훈처는 독립 운동 기록물 대부분을 국내의 기관별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출처-주제-자료유형'의 순서로 기술하는 방법을 우선 택한 것인데, 이러한 인용순서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다섯째, 수집한 독립 운동 기록물로부터 관련 주제어를 추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하여 제안하였고 온라인 컬렉

션은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표 설계는 200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독립 운동 관련 수집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것이므로, 향후 실물 독립 운동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체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분류 체계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기록물의 수량을 기반으로 한 분류항목명의 타당성 검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 운동을 한 인명이나 단체명을 중심으로 한 컬렉션 구성도 전거와 함께 연구되어 분류표의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 체계는 국가보훈처의 독립 운동 사료 수집과 기록물 정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독립 운동 기록 검색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독립 운동 기록물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1). 독립 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대전: 국가기록원.
- 김경남 (2017). 大原社會問題研究所와 제일 한인 독립 운동.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57, 117-151.
- 김솔아 (2013). 사할린 한인 관련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국가기록원 컬렉션 수집 및 분류·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유선, 이명규 (2018).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55-175.
- 김정현, 김홍길 (2006). 연해주지역 항일독립 운동 기록 자료의 수집과 관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60-85.
- 박성우, 정대근 (201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 체계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373-403.
- 박정옥, 이명규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5-42.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 장희우 (2014). 지방문화원 향토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목포문화원 향토기록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전명혁 (2004). 민주화 운동 기록물의 범주 및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전명혁. 史林, 21, 69-90.
- 정광훈, 남영준 (2013).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419-448.
- 정진임 (2007). 매뉴스크립트 분류 체계 개발방안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한국YMCA 전국 연맹'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 조동걸 (2010). 우사 조동걸 전집. 서울: 역사공간.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황선도 (2014). 독립 운동관련기록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조직화 방안 연구: 興士團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Caravaca, M. M. (2017). Elements and Relationships within a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Italian). JLIS.it, Italian Journal of Library,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8(2), 18-33.
- Jimerson, R. C. (2002). Arrangement techniqu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OCLC Systems & Services: Bradford, 18(2), 75.
- Szostak, R. (2017). A Grammatical Approach to Subject Classification in Museums. Knowledge Organization, 44(7), 494-505.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 「국가보훈처 훈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 「독립기념관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웹사이트]

- 5.18기념재단. 검색일자: 2018. 6. 28. <http://www.518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검색일자: 2018. 5. 20. <http://theme.archives.go.kr/>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E-book. 검색일자: 2018. 5. 22.
<http://www.mpva.go.kr/ebook/%EB%B3%B4%ED%9B%8850%EB%85%84%EC%82>

%AC/mpva.html/

- 국가보훈처 공훈사료관. 검색일자: 2018. 6. 12. <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 검색일자: 2018. 5. 12. <http://www.mpva.go.kr/>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검색일자: 2018. 5. 22. <http://archive.history.go.kr//>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시스템. 검색일자: 2018. 5. 22. <https://search.i815.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검색일자: 2018. 6. 28. <http://www.kdemo.or.kr/>
 아일랜드 국가기록원. 검색일자: 2018. 7. 12. <http://www.nationalarchives.ie/>
 아일랜드 군 기록보존소. 검색일자: 2018. 7. 12. <http://www.militaryarchives.ie/en/home/>
 인도 국가기록원 Abhilekh patal. 검색일자: 2018. 7. 20. <http://www.abhilekh-patal.in/jspui/>
 인도 국가기록원(NAI). 검색일자: 2018. 7. 20. <http://nationalarchives.nic.in/>
 중국 제2역사 당안관. 검색일자: 2018. 5. 19. http://www.shac.net.cn/shac_e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D. G. (2010). *Usa Cho Dong-gol Written Works*. Seoul: Historical Space.
- Hwang, S. D. (2014). *A Study on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for Integrated Service of independence movement Records and Archives: A Case of the YKA*. Master's thesis,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Jang, H. W.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cords Classification table of Local Records-Focusing on the records of the Mokpo Cultural Cente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Jeong, J. I. (2007). *A Study on Possible Ways to Develop Manuscript Classification System*.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Myongji University.
- Jun, M. H. (2004). *A Study on the Category of Democratic Movement Manuscripts and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21, 69-90.
- Jung, K. H. & Nam, Y. J. (2013). *Study on the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the Korean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419-448.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der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History Critic Publishers, Inc.
- Kim, J. H. & Kim, H. K. (2006).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 movement records in the Maritime region. Resea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60-85.
- Kim, K. N. (2017). The Ohara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大原社會問題研究所)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Commun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ocused on the Records Collected by the Institute.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57, 117-151.
- Kim, S. A. (2013). A study of Sakhalin Koreans related to the history of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description, classification of collected records from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Y. S. & Lee, M. K.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the Records of th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Hampyeong Massacre Victi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155-175.
- Lee, Y. S.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chemes for NGO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2), 73-101.
- Park, J. O. & Lee, M. G.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3(2), 5-42.
- Park, S. W. & Jeong, D. K.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for Archives of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373-403.
- Seol, M. W. (2011).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217-247.
-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Independence Movement Judgment Document. Daeje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